

LCD 패널 가격 급락현상 “진정”

4월 15.4인치 및 14.1인치 가격 보합세 ... 대형은 상승세로 전환

최근 급락세가 이어지던 LCD 패널 가격이 4월 들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노트북 PC 등 IT제품용은 소폭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노트북 PC용 LCD 패널 평균가격은 15.4인치(해상도 1280×800)가 2006년 10월 102달러, 12월 98달러, 2007년 1월 94달러, 2월 91달러, 3월 88달러로 떨어진 후 4월에는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다.

14.1인치(1280×800) 노트북 PC용 LCD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도 2006년 10월 99달러, 12월 96달러, 2007년 1월 93달러, 2월 89달러로 떨어진 후 4월에는 3월과 같은 85달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15.4인치는 5월 89달러, 6월 90달러, 14.1인치는 5월 86달러, 6월 87달러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모니터용 LCD 패널의 평균가격은 19인치(1280×1024)가 2006년 10월 149달러에서 2007년 3월 117달러까지 떨어졌으나 4월 119달러로 상승세로 전환된데 이어 5월 121달러, 6월 123달러로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17인치(1280×1024) 모니터용 패널 가격도 2006년 10월 128달러에서 2007년 3월 98달러까지 내려갔으나 4월 100달러, 5월 102달러, 6월 104달러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TV용 LCD 패널은 32인치의 평균 판매가격이 2006년 12월 328달러에서 2007년 3월 295달러로 떨어진데 이어 4월 290달러, 5월 287달러, 6월 285달러까지 추가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LG필립스LCD 권영수 사장은 1/4분기 기업설명회에서 “2/4분기에는 TV패널의 판매가격 하락속도가 저하되고 모니터용과 노트북 PC용은 가격이 오르는 등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멀티미디어용 노트북 PC제품과 24인치 이상 대형, 전문가용 등 고부가가치 전략제품으로 LCD 패널 시장 1위를 지키고 수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13>